

04 | 22년 수능 01~03

1. 독서 이론, 독서의 목적과 가치

-이 글은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들이 서가 앞에 선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독서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독서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또한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독서는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주제]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문제 해결의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하는 독서

2. 독서와 목적 의식

이러한 읽기의 개념, 즉 의미적용과 의미연결로 볼 때 독해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어휘력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능력이다.

어휘력은 글에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휘라는 단어의 이름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용표현, 속담 등의 글에서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말은 사전에 의미를 숙지해놓아야 의미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어휘력이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가장 보편적으로 대응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사용근거를 둔다. 연결능력은 어휘력을 통해 각각의 부분에 표현된 의미를 조합하여 더 큰 하나의 의미로 완성하는 능력이다. 이는 사고력과도 관련이 깊다. 독해력에서 가장 훈련이 중요한 부분이며 사전에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면 오직 훈련밖에는 방법이 없기도 하다.

독해력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해당 글에 대한 배경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독서를 비롯해 수많은 글을 읽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 순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읽고자 하는 글에 해당하는 배경지식을 선택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독서를 할 때는 독서교육자이든 자신의 관점이든 어떤 기준에 의해 글의 난이도를 분류하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선택하여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임을 재차 강조한다.

예행연습

①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 ②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③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① 독서의 위대함
② [질문]
독서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

// ③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 ④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 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 ③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③ 독서의 의미 1
④ 지혜와 경험
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의 만남
③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

// ⑥ 또한 ①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 ⑦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 ⑧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 ⑥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⑥ 독서의 의미 2
⑦ 책은 지식
⑧ 독자의 생각과
축적된 지식의 만남

/ ⑨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 ⑩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⑥ 시대적 과제
해결 실마리 찾기
⑨ [종합]
⑩ [답]

01

질문과 답변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EBS 해설

㉠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가 앞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였을까를 묻고 있다. 2문단에서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은 이유가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Keyword 1 숙고하다 熟 익을 숙 考 생각할 고

동사

I. 「...을」(‘...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1. 곰곰 잘 생각하다.

그 문제는 재삼 숙고하십시오.

2. 아주 자세히 참고하다.

‘심사숙고하다’의 줄임말이다.

深 깊을 심 思 생각 사 熟 익을 숙 考 생각할 고

1.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찰(考察)함.

2. 신중(慎重)을 기하여 곰곰이 생각함.

02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화 해야겠군.

EBS 해설

㉠은 독서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과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독서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정답 ⑤

03

‘나’와 ‘타인’ = ‘내부’와 ‘외부’

3.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BS 해설

‘독서 기록장’에서 ‘나’는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자신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 즉 ‘자기 성찰의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학생은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Keyword 1 성찰하다 省 察 省 察 省 察 省 察

1.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 가톨릭 고해 성사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다.

05 | 22년 수능 04~09

1. 인문,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가)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따르는 변증법에 대해 설명하고,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던 예술에 대한 헤겔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며, 이들 셋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예술·종교·철학은 이념을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헤겔은 이러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주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서의 절대정신과 예술

2. 인문,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엄밀하고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겔은 변증법 모델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 간 불일치에 대한 비판

지문분석

(가)

①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

②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 ③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 ④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⑥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Keyword 1 A는 B의 한 형태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얼음은 물의 형태 중 하나다. 수증기 역시 물의 형태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얼음'과 '수증기'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둘 다 물이라고 할 수 있어도 말이다.

즉, 근본적으로 같지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Keyword 2 A하는 B

A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B라는 의미, 즉
- 예술은 '직관'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종교는 '표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철학은 '사유'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⑦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⑦ 절대정신의 내용

/ ⑧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⑧ 직관-표상-사유의 단계적 등급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글쓰이의 관점]

1. 헤겔의 변증법: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2.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 '절대정신'
3. 절대정신의 내용
4. 절대정신의 형태 사이의 단계적 등급

[무엇이 읽기 어렵게 만드는가?]

사실 문장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며 읽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것이다. 또한 단어 역시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럼 무엇이 이 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그 답은 철학 특유에 생소하게 만들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A는 B의 한 형태이다'라는 문장구조는 그리 어려운 문장구조가 아니다. 다만 보통 '물'과 같이 어떤 물질의 형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장구조를 쓴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정신'과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문장구조를 쓴다.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 형태를 논하며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이 형태의 구분을 위해 특정행동을 연결 짓는다. 예를 들면,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연결 짓는다.

이처럼 어렵지 않은 단어들의 조합을 비틀어서, 일상의 언어 사용과 거리를 두며, 생소하게 만드는 철학의 서술 방식이 글을 읽게 어렵게 만든다.

그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쉬운 것에 집중하는데에 있다.

쉬운 표현과 쉬운 단어에 집중하면서, 단어들이 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①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① 종합의 의미

/ ②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② 헤겔 변증법의 탁월성

// ③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③ [질문]

탁월성에 대한 의심

/ ④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④ 미학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기 힘들

/ 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⑤ [답]

헤겔 미학의 한계점

: 종합이 아님

: 내면성과 외면성

// ⑥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⑥ [해결책]

주관성에 재객관화

/ ⑦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⑦ 철학 이후의 자리

: 철학 뒤에 예술

: 회전구조

[글쓴이의 관점]

1. 문제가 있음을 확인

2. 문제의 원인 확인: 헤겔의 변증법과 미학 사이의 관계 분석 및 한계점 논의

3. 자신만의 해결책 제시와 아쉬움 토로

01

근거찾기, 다시 말해 기준을 확인하자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문항 번호 | 오답률 | 정답 | 선택지별 비율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62.5 | 1 | 37.5 | 15.4 | 28.7 | 11.5 | 5.2 |

EBS 해설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철학보다 인식 수준이 낮은 절대정신으로 보고, (나)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02

A의 B: 수식이 붙는다는 것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문항 번호 | 오답률 | 정답 | 선택지별 비율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54 | 3 | 17.5 | 13.9 | 46 | 11.8 | 9 |

선지 1번,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선지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선지 3번,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직관·표상·사유는 지성의 세 가지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각각의 지성과 ‘~하는 절대정신’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는 절대정신’은 ‘절대정신이 ~을 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지성은 절대정신의 ‘행동’ 혹은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선지 4번,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선지 5번, 절대정신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이며,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EBS 해설

2문단에서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을 제시하고, 각각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때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라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 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의 인식 대상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03

내부와 외부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 선지 | 직관 | 표상 | 사유 | 비고 |
|----|------------------------|--|--|----|
| |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 |
| ① |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 |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 | | |
| ② | | -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 | |
| ③ |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 | |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 | |
| ④ | | | -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 -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 |
| ⑤ | | |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 |

EBS 해설

(가)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04

개념의 존재 방식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문항 번호 | 오답률 | 정답 | 선택지별 비율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56.2 | 3 | 13 | 13.5 | 43.8 | 18.3 | 9.6 |

㉠정립-반정립-종합 / ㉡예술-종교-철학

1번 선지,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2번 선지,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3, 4, 5번 선지,

- ㉠에 대해: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에 대해: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EBS 해설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있을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나)의 글쓴이는 ㉠의 논리적 구조에서와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05

‘나’와 ‘세상’ = 내부와 외부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문항번호 | 오답률 | 정답 | 선택지별 비율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68.9 | 2 | 11.4 | 31.1 | 13.2 | 30.9 | 11.5 |

[헤겔]

(사유)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예술)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의 입장 1]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2번 선지가 정답인 이유는 헤겔의 미학의 한계점에 대한 '(나)의 글쓴이'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순환 구조가 발생하면서, 예술은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가 발생한다.

[(나)의 글쓴이가 인식하는 문제의 원인]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나)의 글쓴이의 입장 2]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4번 선지,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에서 객관성이 사라지는 것은 '헤겔의 미학 분석의 한계점'이며, (나)의 글쓴이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라고 뜻을 박았다. 따라서 4번 선지에서 객관성이 사라지는 것은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 될 수 없다.

EBS 해설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고 말하면서 헤겔의 미학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헤겔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